

작품소개

판소리 적벽가에 이어 병신춤의 대가 '공옥진'에 주목하는 연극 전통의 단순한 재현이 아니다, 전통을 현재화하는 방식이다



〈이야기의 방식, 춤의 방식-공옥진의 병신춤 편〉은 2014년 '해학동 1번지'에서 전통을 탐구하는 과정의 하나로 선보인 〈이야기의 방식, 노래의 방식-데모버전〉의 연작 시리즈이다. 옛 판소리를 배우며 현대와의 접점을 찾고자 했던 전작에 이어, 올해는 '병신춤의 대가' 공옥진과 1인 창무극을 탐구한다.

작품은 공옥진의 '병신춤'을 키네틱 센서를 이용한 게임으로 배울 수 있을까에 대한 발상으로부터 출발했다. 일제강점기, 해방 이후, 한국전쟁과 창극단 시절을 통과하여,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공간소극장 '공간사랑'에서의 공연 이후의 공옥진에 대해 주목한다. 그리고 이 탐구 과정에는 한국사의 질곡 속에서 공옥진이 춤 배우는 과정과 춤이 발생하는

지점, '병신춤'이라는 형태에 대한 고민, 키네틱 센서가 읽어 내는 것과 읽어 내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통시적 고찰이 녹아 있다. 작품은 키네틱 센서를 활용해 병신춤의 동작을 복제해 게임 프로그램으로의 개발 가능성을 타진하고, 이의 가부를 통해 공옥진의 병신춤을 배우며 병신춤을 '현재화'한다. 이를 위해 공연에는 공옥진의 수제자들이 등장한다.

불온한 상상력을 표방하며 그동안 연극계에서 적지 않은 문제작을 만들어온 그린피그. 그들은 공옥진과 병신춤을 무대로 불러내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려 들지 않는다. 이 공연은 공옥진의 경험과 그 경험으로 비롯된 춤사위/춤의 형태를 그들만의 방식으로 찾아나가는 여정이다. 이 모든 것들은 어떤 때보다 진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연출소개

윤한솔

연출작 〈할미꽃단란주점 할머니가 멜론씨를 준다고 했어요〉 〈나는야 연기왕〉 〈인터넷 이즈 씨리어스 비즈니스〉 〈치정〉 〈안산순례길〉 (1984) 〈이야기의 방식, 노래의 방식-데모버전〉 〈빨갱이. 갱생을 위한 연구〉 〈두뇌수술〉 〈원치 않은, 나혜석〉 〈아무튼 백석〉 외

수상 2016 제18회 김상열연극상 수상
2013 서울연극협회 올해의 젊은 연극인상 〈아름다운 동행-비밀친구〉
2012 제5회 한국연극협회 대한민국 연극대상 작품상 〈두뇌수술〉
2011 제2회 두산연강예술상 수상

출연진



극단소개



그린피그

그린피그는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는 신념과 뜨거운 감성을 가진 사람들이 만든 공연단체입니다. 의심없이 혹은 의심하지 않고 진행되는 우리문명에 대한 진단을 하는 연극을 하고자 모인 사람들입니다. 주제와 예술 형식의 진보를 고민하는 연극을 하고자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린피그의 작업은 저항 혹은 엑스더스를 위한 매뉴얼 혹은 도구입니다.

제작진

각	공동창작	영상	윤민철	홍보사진	조현우
연출	윤한솔	분장	장경숙	홍보영상	삼인칭시점
드라마터그	김민승	의상	김경희	인쇄물디자인	디자인컴퍼니
조명	최보윤	조연출	강대영		
음악	장영규	무대감독	박현지		